

‘정예 장병 육성’ 한마음… 한미 해군 파트너십 굳건

한미 해군교육사령부 군사협력 강화
강정호 사령관, 미 교육·모병 현장 방문

해군교육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강정호 사령관이 미 해군교육사령부와 모병사령부를 각각 방문해 인공지능(AI) 군사교육 미래발전 방안과 모병 홍보 전략 등 정책들을 확인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1971년 창설된 미 해군교육사는 2만 4000여 명 이상의 군인·민간인 직원들이 매일 251개 훈련장에서 3만3000명 이상의 장병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방문은 한미 해군 교육부대 간 군사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강 사령관은 미 해군의 전문 군사교육 과정과 절차, 특히 AI를 적용한 군사교육 계획 수립과 미래 교육 분야를 집중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미 모병사에서는 병력 확보를 위한 모병 홍보전략, 체력·학업 저조자 입영 준비과정 개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 미군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하고 토의했다.

그랙 허프먼(소장) 미 해군교육사령관은 “한국 해군교육사령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예 장병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한미 해군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합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전투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교육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강정호(왼쪽) 해군교육사령관이 그랙 허프먼 미 해군교육사령관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공군 준사관단이 16~17일 개최한 오산지역 소통 간담회에서 박진형(가운데) 공군준사관단장이 바람직한 병영문화 조성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군 제공



육군훈련소가 29연대 간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역량 강화 소통·공감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첨단 정예 공군 건설 위해 ‘소통 다리’ 되겠다

준사관단 오산지역 소통 간담회 개최

공군은 16일과 17일 오산기지에서 ‘공군 준사관단 오산지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군 준사관은 부대 중간관리자로서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토대로 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준사관단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는 오산기지와 인근에서 복무 중인 준사관과 주임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부 지시사항 공유 △준사관단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부대별

어로 및 건의사항 수렴 △공군 발전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부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진형(준위) 32대 공군준사관단장은 “공군 준사관 모두가 각 부대 부사관·병사들의 멘토이자 역할모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 건설에 밑거름이 되자”고 당부했다.

최한영 기자

육군훈련소, 29연대 간부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육군훈련소는 17일 “최근 29연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2025년 소통·공감 간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MZ세대 훈련병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교관들이 자기성찰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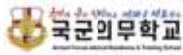
한국예술통신학회 1지부와 연계해 진행된 LINK mind 프로그램은 △리더십(Lead) △자기이해(In) △공동체 의식(Notion) △존중 기반 친화력(Kindness)을 주제로 체험형 활동과 심리학적 접근을 접목해 팀워크와 소통 능력을 향상했다.

박주희(상사) 소대장은 “소통과 공감은 강한 조직을 만드는 핵심 가치임을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 전우와 훈련병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관이 돼 작은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영석(대령) 29연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신뢰 강화, 자기조절 능력 향상, 책임감 고취 효과가 간부 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훈련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간부교육과 워크숍을 이어가며 교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원 기자



국군의무학교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Medical Academy

제 22회

2025년 의무병과 발전 세미나

일시 · 장소

2025. 10. 14.(화) 10:00 ~ 15: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세종 다솜3로 66)

발 표 주 제

순서	발 표 주 제	발 표 기 관 (발표자)
1	의무 무기체계 발전방향 - 2055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미래혁신연구센터 (생체의학연구부장)
2	AI-확장현실(XR)에서 구현되는 의료분야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3	중장기 의무정책 /전력발전 중심 미래 군 의료발전 추진경과	의무사령부 (의무정책전략발전과장)

전시 및 공연

개선형 구급차 (국군의무학교)
확장현실 메타버스 (서강대학교)

환자 시뮬레이터 (국군의무학교)
작은 음악회 (스페이스 연)